

국민의당 동구청장 재선거 경선 4파전

김성환·방정현·안재경·오형근...내주 초 후보 결정

더민주 흥진태, 무소속 양혜령·문팔갑과 본선 경쟁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의 국민의당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16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이날 공천 신청자들에게 대한 1차 컷오프 회의를 통해 김성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과 방정현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 오형근 조선대학교 대학 외래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

김성환 동구의회의 의원과 임종태 호남발전연구원 원장 등 2명은 이번 심사에서 탈락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2차 경선을 통해 이들 후보 중 1명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측은 국회의원 경선의 경

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100% 배심원제'로,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은 '배심원제 70%+여론조사 30%' 혼합 방식으로 치를 계획이다. 속의배심원제 투표는 일반 유권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에 따라 뽑힌 선거인단이 한자리에 모여 4시간가량 후보자의 발표를 듣고 토론한 뒤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구청장 경선방식과 일정과 관련해 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식으로 2차 경선을 치르지는 않겠느냐는 게 정치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민의당 측은 24일부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후보 등록인 만큼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동구청장 후보자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후보자가 정해지면 동구청장 재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흥진태 전 광주시 투자교육국장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흥 전 국장은 지난 10일 안심번호를 이용한 휴대전화 ARS 국민여론조사에서 입택 광주시의회의원을 누르고 더민주 후보자로 최종 선정됐다.

무소속 후보로 양혜령 전 광주시의회의원과 문팔갑 전 광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본부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양 후보는 지난 12일 "공정한 공천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김영록 사무소 개소... "반드시 정권교체"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은 16일 4·13 총선 선거사무소를 연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엔 김종인 당 대표 및 박영선 전 원내대표, 이용섭 비대위원의 영상 축사와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박해자 의원 등 및 지역 당원·당직자·지지자 등 1000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민과 약자 놓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챙기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군 정훈교육 전수조사 해야"



국민의당 권은희(광산 을) 의원은 16일 5·18 민주화운동 애곡과 관련해 군 정훈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5월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북한 이발 주인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강요한 데 대한 대책 차원이다. 권 의원은 "육군 신병교육,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 정훈교육 과정에서 5·18 애곡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이인호, 광주 북을 출마 선언



새누리당 이인호 예비후보가 16일 4·13 국회의원 총선에서 광주 북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소통하는 정치를 펼쳐 광주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협상"이라며 "호남이 소외받는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정부에 지역민의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출신의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석 "소통채널 만들어 시민 의견 청취"



국민의당 송기석 서구갑 예비후보는 16일 광주시민과 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포럼 구성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대변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라며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원필기자 cki@

새누리, '친이' 이재오·'막말' 윤상현 공천 배제

임태희 등 비박계 학살 현실화

무소속 출마 선언 등 반발 확산

새누리당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친이(친이명박계)와 친유(유승민)계 등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를 줄이는 공천 탈락시키면서 공천학살이 현실화됐다.

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대구·부산 방문 등을 거론하며 정외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박계 학살=공천관리위의 지난 15일 밤 제7차 공천 심사 결과,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주호영·조해진 의원, 강승규 전 의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정하 전 대변인 등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후보들이 줄줄이 '컷오프'(공천 배제) 되거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또 16일까지 유승민 의원과 친한 김희국·류성걸·권은희·이종훈·이재·홍지만 의원 등이 줄줄이 탈락했다. 친이계로 컷오프된 조해진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반면, 전남 탈락한 친박계는 막말 논란을 빚은 윤상현 의원이 유일했다.

◇반발 확산=비박계 연대로 이어지거나=공천 과정에서 비박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자 일각에선 '비박연대'가 결성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탈락 의원들이 공천심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하고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태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안상수



김종인-김무성 무순 얘기 할까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자 정책 연대 및 생존권 사수 출정식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남뉴스

의원도 "공천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고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재오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의원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주요 비박계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행렬이 현실화되면 지난 2008년 3월 공천과정에서 대거 탈락한 친박계 인사들이

'친박연대' 또는 '친박 무소속 연대'를 발족했던 것처럼 비박연대를 차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시 비박연대가 가능했던 것은 차기대선 주자인 박 대통령이라는 확실한 정치적 구심점이 있었던 반면 현재 비박계는 구심점이 없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건태 "또인권재판소 광주 유치"



국민의당 이진태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가 16일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광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종말살의 비극, 종교·민족 갈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추진 중인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유치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확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고원 "강한 야당 건설...정권 교체 앞장"



국민의당 고원 광주 광산 을 예비후보는 16일 호남주도세력 교체를 통해 강한 야당 건설과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DJ 이후(야당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인들을(일부 세력의) 패권주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새로운 인물과 세력으로 호남정치를 근본부터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특히 "역사적 대의 속에 호남정치의 비전을 접목,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피력했다.

DJ 3남 김홍걸, 불출마 선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래 전부터 세력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라며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의 광주 출마 제안과 관련 "어머니도 병중이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 달 이상 서울을 비울 수가 없다. 지역 선거에 나가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중연합 신나리, 동남갑 출마 선언



민중연합당 신나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사무장이 16일 4·13 국회의원 총선거 광주 동구·남구 갑 출마를 선언했다. 신 사무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력한 정치를 끝내고 활력 있는 남구를 만들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99%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고용하지 않는 재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흥진태 '문화인식 저변확대 릴레이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흥진태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16일 멋과 품격 있는 문화동구 건설을 위해 '문화인식 저변확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흥 후보는 이날 "동구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시재개발·도시재생 사업에 문화요소를 접목하는 것"이라며 "문화전당 역시 연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 후보는 특히 "5·18 민주광장 지하공간과 예술의 거리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총장로 5가 일대 빈 점포는 미디어산업센터로 각각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정현 "문화·생태·복지 동구 만들 것"



국민의당 방정현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는 16일 경선 후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순수한 열정과 젊은 패기로 낙후된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방 예비후보는 "동구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재생 문제"라면서 "살고 싶은 쾌적한 문화·생태·복지 자치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